

거리끼고 미련하나

고린도전서 1 장 21 - 25 절

1. 복음은 충고가 아니다

한 외국인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캐나다 목사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모른다고 하시면서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복음을 설교하는가** 물으신 겁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부분의 설교자가 복음을 설교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성경에 충실한 강해설교가 강한 편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차 물으십니다. **정말로 설교자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설교의 초점을 두고 있는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영어권 설교자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대부분의 설교 주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더 훌륭한 인간이 되는 법, 더 나은 배우자가 되는 법, 더 좋은 부모가 되는 법, 구원을 받는 방법,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설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것을 복음 설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겁니다. 교수님은 **복음이 무엇인가, 그걸 묻고 싶으셨던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단어의 뜻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뭔가 놀랍고 특별한 일을 행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결코 사람들에게 이렇게 혹은 저렇게 살라는 충고가 아니란 것**, 그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작 **복음을 설교할 때에는**

1. 뉴라이프 - 거리끼고 미련하나

하나님 대신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렇게 하라, 둘째 이렇게 하라, 셋째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일을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그 복음의 일차적인 관심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거기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설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설교,

사람들의 호기심만 자극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일을 무엇보다 기쁘게 선포하고,

나아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가감없이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기쁜 소식의 세 가지 특징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면, 이 소식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말입니다. 다른 소식과 다른 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선, 기쁜 소식은 난데없이 불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훨씬 긴 이야기 안에서 뭔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이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즉 좋은 소식은 언제나 더 큰 이야기 안에 놓일 때 비로소 설명이 됩니다. 길고 힘들었던 투병의 과정이 있었기

1. 뉴라이프 - 거리끼고 미련하나

때문에 암 세포가 소멸된 것은 좋은 소식이 되고, 지루하고 따분한 수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 합격은 기쁜 소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 이 소식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앞으로 뭔가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암 세포가 소멸된 것이나 대학에 합격한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상 가운데 아주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암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품게 되고, 지루한 수험생 신분을 벗어나서 행복한 대학생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셋째, 이 소식들은 기다림의 중간 단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즉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 남아 있고, 대학 등록과 대학생활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 대신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고, 지루함 대신 기대감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소식은 언제나 오래된 이야기 안에 자리하게 될 때 바르게 이해가 되고, 실제로 일어난 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맛보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절망이나 슬픔 대신 흥분과 기쁨으로 기다리며 살게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정확하게 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나라의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십자가의 복음 혹은 부활의 복음, 그게 어떤 이름이든 간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3.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은 여러 사람에게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바울이

1. 뉴라이프 - 거리끼고 미련하나

각각 독특한 시선을 따라 복음 이야기를 서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증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약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데 이후 고린도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분파가 생겨났고, 예배와 성령의 은사 문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깊이 다룹니다.

바울은 18 절에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에게 복음은 은밀한 종교 지식이 아니며, 매끈하게 포장된 철학도 아니고, 잘 살기 위한 조언도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행하신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세상 속에 개입하면 인류 전체가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본래는 모두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23 절에서 밝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그러니 죄를 범한 인간은 예외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그로 인해 멸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에덴동산의 이야기는 죄로 인한 인간의 비극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1. 뉴라이프 - 거리끼고 미련하나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수치심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나아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회적 단절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에덴동산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멸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게 바울이 외치는 복음입니다.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진노 아래 있지 않고, 구원의 자리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데 이 두 그룹을 묘사하는 바울의 표현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는 점**입니다.

즉,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 복음은 미련한 것이다

바울의 복음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18 절 앞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이 보기에 복음은 지극히 미련한 것이란 선언입니다.

그런데 20 절에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고대 그리스-로마 세계에서는 말을 잘하는 변론가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영화배우나 운동선수들이 받는 인기와 유사한 대접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현자, 학자, 변론가들이 어디에 있는가 묻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말이 이미 하나님의 충격적이고 놀라운 한 판 뒤집기인 “십자가”에 의해 모두 쓸모가 없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 잘난 사람들, 철학자들, 율법의 학자들, 인기가 많은 웅변가들도 정말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뱉내는 지혜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과 달리 아주 미련한 방식으로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셨고, 그로 인해 인간의 모든 상식이 폭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미친 것과 다름이

1. 뉴라이프 - 거리끼고 미련하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수치스러운 죽음이 세상의 구원 사건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믿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일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복음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메시아 구원자로 선포한다는 것은 로마 제국 하에서 정말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 반역자를 처단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가 외친 황제의 복음입니다. 로마 황제가 온 세상에 평화를 심어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로마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붕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짜 구원을 베푸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황제의 복음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고난을 당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아니라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 나타났던 그런 표적들 말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지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고, 또 당연히 여겼던 기준을 모두 날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처럼 기괴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24 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1. 뉴라이프 - 거리끼고 미련하나

이 말도 되지 않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5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결국 바울이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약한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말입니다.

결국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발상의 전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물들어 있는 마음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새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예스라고 외치는 것에 대해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역설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어리석고 약한 죽음에 의해 변화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먼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어찌 복음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눈을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